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 
		배포일시	2020. 4. 24(금) 총 4매(본문 3매, 별첨 1매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	담 당 자	·과장 임종일, 사무관 임성훈, 이종문 (044-201-4782, 3951)	
보 도 일 시		2020년 4월 27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4. 27.(월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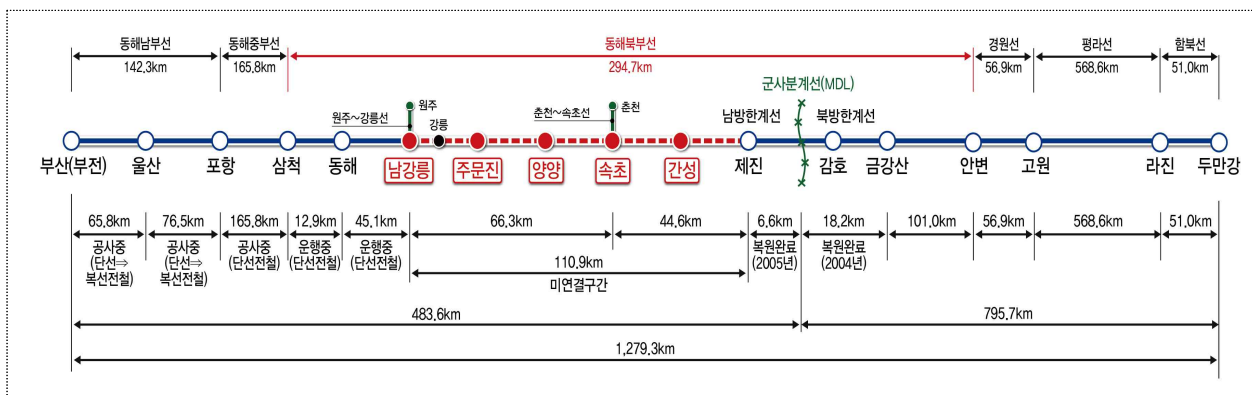
동해북부선 53년 만에 복원 내륙철도망 연결의 길 열려

- 국토부·통일부, 판문점선언 2주년 계기 「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」 개최
- 강릉~고성 제진 구간(110.9km) 건설사업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·교통망 확충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통일부(장관 김연철)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,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('18. 4. 27.) 2주년을 계기로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'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'을 개최했다.
 -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졌다.
 -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, 통일부 장관, 강원도지사, 지역 국회의원, 지역주민과 철도관련 건설·운영·유지관리·연구 기관장 등 각계 인사 및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.
-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었으며,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53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다.

- 한편, 동해북부선 강릉~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되었으며,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난 24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.

- 이 사업은 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.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. 총 사업비는 약 2조 8,520억 원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정된 후 추진할 계획이다.



- 한편, 이 사업을 통해 끊어진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되고,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.

- 또한, 동해권 관광, 향후 남북관광 재개 시 금강산 관광 등 국내·외 관광객 유입이 촉진되고,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△생산유발효과 47,426억원 △부가가치 유발효과 19,188억원, △고용유발효과 38,910명 추정(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, 강원연구원, 2018)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“동해북부선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철도 협력을 준비하는

사업으로,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건설사업*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

* 부산~울산 복선전철(‘21년 개통), 울산~포항 복선전철(‘21년 개통), 포항~삼척 단선전철(‘22년 개통), 포항~동해 전철화(‘22년 개통), 춘천~속초 단선전철(‘27년 개통), 동해선 북측구간 현대화 공사 등

- 행사를 마친 김 장관은 인근 지역의 과거 운행했던 동해북부선 현장*을 방문하여 “동해북부선의 역사가 남아있는 현장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, 하루빨리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”면서, “설계와 시공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”고 밝혔다.

*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부근에 위치한 과거 동해북부선 운행 철도터널

-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“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‘한반도 뉴딜’ 사업이며, 이로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이 완성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※ 참고 : 동해북부선 강릉~제진 철도연결 노선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임성훈 사무관(☎ 044-201-4782),
이종문 사무관(☎ 044-201-39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동해북부선 강릉~제진 철도연결 노선도

